소득 대비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BIS 신용 위험도 분석

44개국 중 韓日만 '경보' 단계…총부채 6천조 달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았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p)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p로 10%p를 넘어서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p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225.5%에 달해, 2020년 1분기 말(200.0%) 이후 15분기째 200%를 웃도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로 각각 집계됐다.

과거 신용 갭이 10%p를 넘나든 기간은 매우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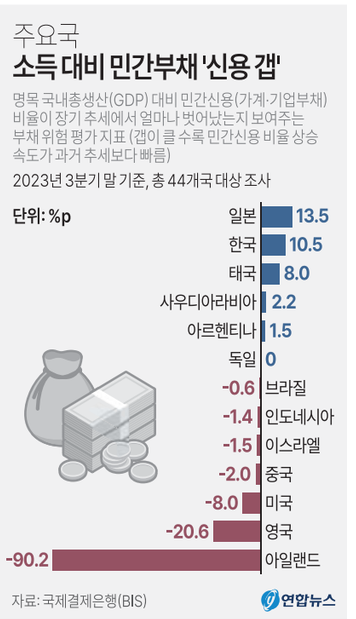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p)부터 1998년 3분기 말(10.5%p)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p)부터 2009년 4분기 말(11.2%p)까지 등이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 말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한 국가는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일본(13.5%p)과 한국뿐이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천988조1천91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8천614억원 더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천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증가율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달러 강세에 2월 외환보유액 감소 6일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57억3천만달러(약 555조2천억원)로, 전월(4천157억6천만달러)보다 3천만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韓조선 수주량 1위…선박왕국 위상 되찾나

지난달 171만CGT 수주…경쟁국 中 제쳐

올해 2월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

6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41만CGT(표준선 환산톤수·100척)로 작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한국은 이 중 171만CGT(50%)를 수주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중국은 141만CGT(41%)로 2위였다. 척수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28척, 59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전월 말 대비 13만CGT 감소한 1억2천588만CGT였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6천223만CGT(50%), 한국 3천861만CGT(31%) 등의 순이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1.45포인트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대비 11.0% 상승했다.

선종별 1척 가격은 17만4천m^3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억6천500만달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1억2천80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3천700만달러였다. /연합뉴스

中企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 재편

도입모델 다양화·3→6개로…첨단산업 인력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 재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전문학사에서 박사까지의 학위취득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한 중소기업 인재대학의 도입모델을 ▲신기술·신산업 연계형 ▲지자체 협력형 ▲대·중소 상생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규모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공급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학위지원을 강화하고 계약학과와 일반학과 간 융·복합 과정 운영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석·박사 과정 수요에 맞춰 석·박사 논문지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고급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사관 졸업생의 계약학과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특성화고 내 '기술사관반'을 개설해 고등학교에서 전문학사, 박사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웹 사이트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기업 풀을 사업단과 공유해 중소기업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솔 기자

광주은행 '나와 별 보러 가자!' 이벤트

비대면 채널로 상품 가입 시 최대 6개 경품 선착순 제공

광주은행은 6일 "오는 6월28일까지 '나와(Wa) 별 보러 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와(Wa) 별 보러 가자!'이벤트 대상고객은 최근 6개월간(2023년 9월~2024년 2월) 이벤트 대상 상품 미가입 고객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대상 상품(6개) 가입 시 상품별 쿠폰 1매, 개인별 최대 6매, 선착순 5천좌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원화적금(가입금액 20만원 이상) ▲원화예금(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외화적금(미화 100달러 이상) ▲외화예금(미화 1천달러 이상) ▲펀드(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IRP(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광주와뱅크(APP)'를 통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1잔 ▲GS25 편의점 5천원 상품권 ▲맥도날드 맥치킨 세트 중 원하는 경품 선택이 가능하며, 경품 지급일 기준 정상 계좌 유지 및 휴대폰메시지 마케팅 동의고객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와뱅크(APP),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별을 획득하는 펀(Fun) 요소를 가미해 쉽고 재미있는 금융을 경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대기업 75% 공급망 ESG 관리"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지난해 KOSPI 상장기업 838개사 중 지난해 9월말까지 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상장 대·중견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에서 수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75%가 자체적인 행동규범, 평가기준,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를 하고 있었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업종별로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정부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010-6670-98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빠)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융4억)

062-382-55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전남

광산구 신창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타)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